

“늙지 않는 비결 세가지는 공부·여행·연애”

컬처 & 피플

전남대 명예교수·철학자 김형석

올해 나이 아흔 일곱 살 지팡이·보청기·틀니 없어 하루 원고 40매 왕성한 활동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는 60~75세 때더라”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1920년 생으로 올해 아흔 일곱 살이다. ‘한국 철학계 1세대 교육자’이자 수필가,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다. 100세를 바라보면서도 요즘 강연과 집필 등 지적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김 교수의 첫 인상은 연세에 비해 너무나 ‘젊었다’. 노인들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지팡이나 보청기, 틀니에 전혀 의존치 않음은 물론 허리는 꼳꼳했고, 음성도 또렷했다. 흔하디 흔한 ‘70대는 해마다, 80대는 달마다, 90대는 날마다 늙는다’라고 비유하는데 원로 철학자의 건강 비결은 뭘까?

“우리 나이쯤 되면 다 하는 얘기가 ‘하루, 하루는 지루하고 일년은 빨리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난 하루하루도 빠르고, 일년도 빠른 셈이에요. 일의 덕택인 것 같아요. 난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은 일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100세 앞두고도 지적활동 왕성=김 교수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다. 하루걸러 자택 인근 수영장에서 30여 분간 수영을 한다. 50대 후반에 시작해 40여 년 이상을 계속해오고 있다. 또 매일같이 산책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오후에, 여름에는 아침에 주로 한다. 술·담배는 평생 가까이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 동수리 파로호변에 위치한 ‘김형석·안병욱 철학의 집’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강연을 했다. 새해 들어 그동안의 강연 내용을 묶은 ‘사랑과 희망이 있는 이야기들’을 펴냈다. 또한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설계’라는 새 책을 내기 위해 하루 40매씩 원고를 육필(肉筆)로 쓰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이 선물해준 워터맨 만년필로 원고지에 또박또박 쓴다.

김 교수와 안병욱(송실대), 김태길(서울대) 교수는 1920년대 동갑내기로 ‘철학 삼총사’로 불렸다. 80대에 접어들었던 어느 날 안 교수가 말했다. “내가 늙지 않는 법 세 가지를 알려줄까? 첫째는 공부를 계속할 것, 둘째는 여행을 자주 할 것, 셋째는 열심히 연애할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늙지 않는다고.”

또한 세 친구는 ‘연애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가? 인생의 시계를 언제로 돌리고 싶은가?’를 화제에 올린 적이 있다. 이때 모두 ‘60~75세’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시절로 입을 모았다고 한다. 그때가 ‘인간적,



학문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인생과 행복이 먼저지면서 발전하는 시기’라는 부연 설명이었다.

◇대학에서 50여 년간 철학 강의=김 교수는 살아오는 동안 크게 세 차례 목숨을 잃을 뻔했다. 14살 가난의 밑바닥에서 건강을 잃었을 때, 24살 일본 유학중에 강제 징집될 뻔한 때, 27살(1947년) 월남할 때 등이다. 그중 병약했던 14살때의 신앙적 깨달음이 김 교수의 인생 향로를 결정지었다.

김 교수의 고향은 만경대 뒷마을인 평양시 대동군 송산리이다. 명문 민족주의 학교인 평양 숭실중학(5년제)에 재학중 김 교수는 ‘신사참배를 하고서 학교에 다니는 게 좋으나, 학교를 못 가더라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게 옳으나’ 깊은 고민에 빠졌다. 조선총독부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정신적인 항일운동의 하나였다.

결국 학교를 자퇴한 김 교수는 대신 매일 자전거를 타고 평양 부림(俯立) 도서관에 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책을 섭렵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파스칼,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책과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 책이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년 뒤 다시 학교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은 그에게 ‘철학자’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때를 계기로 김 교수는 ‘학문중의 학문’인 철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졸업 후 일본 유학을 떠나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됐다.

김 교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귀향해 교사로 일했다. 하지만 해방후 소련군이 진주한 이북이 공산주의 세상으로 바뀌면서 위협을 느껴 1947년 8월, 부인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었다.

이후 중앙학교에서 교사로 7년간 재직후 1954년에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부임한다. 그는 31년간 철학을 강의하며 제자들을 키웠고 1985년에 정년 퇴임했다. 이어 2003



박진현의 문화카페
‘박진현의 문화카페’가 처음 독자들 만나 건 지난 2006년 9월 4일이었다. 당시 광주는 2004년 첫 삼을 뜬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을 바라는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예향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 보는 세미나들이 하루걸러 이어졌다. 매주 한 번씩 문화카페를 ‘열게’ 된 것도 지역의 문화이슈들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날’ 문화카페의 첫 주인공은 ‘오지호 초가’였다. 한국적 인상주의 회화를 개척한 고 오지호 화백(1905~1982)의 예술혼이 깃들여 있는 광주 지산동 초가(광주시 기

유였다. 이런 에피소드를 곁들여 쓴 ‘오지호 초가’는 거장에 대한 예우와 그의 예술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만큼 기념물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광주시의 방침으로 오지호 초가 논란은 마무리됐다.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하지만 문화 광주의 ‘예술인 마케팅’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얼마 전 ‘사람이 문화자산이다-오지호 화백’(본보 2월 3일자 18면)을 취재한 후배기자에 따르면 2016년 겨울에 찾은 지산동

아! 오지호 화백

남물 제(호)를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갈등을 꼬집는 글이었다. 그즈음 일부 주민들이 1986년 오지호 초가를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20년 동안 건물 증축제한과 같은 재산침해를 겪어 왔으며 광주시에 지정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기자는 1년 전(2005년), 오지호의 둘째아들 오승운 선생(1939~2006년)과 일화가 떠올랐다. 그때도 지산동 초가를 ‘애물단지’로 여긴 일부 주민들이 광주시에 민원을 넣는 등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기자는 초가에서 거주하는 유족의 입장을 듣고 싶어 오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심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데 웬걸, 선생의 반응은 내 예상을 빗나갔다. ‘우리도 하루빨리 해제됐으면 좋겠다. 이전 지나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저 세상에서 아버지를 뵈면 목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구차하게’ 문화재로 남고 싶지 않다’는 게

초가는 10년 전 그대로였다고 한다. 유품은 있지만 유작은 없고 광주의 명소들과 연계된 관광마케팅이 부족해 방문객이 뜸하기 때문이다.

사실 서양화단의 개척자인 오지호의 작품을 광주에서 접하는 건 쉽지 않다. 대부분의 대표작이 국립 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데다 광주시립미술관 내 오지호 전시실이 지난 2008년 폐쇄되면서 그의 예술세계를 관람할 상설공간이 거의 없다. 출생지인 화산 모후산 자락에 ‘오지호 기념관’이 있긴 하나 전품은 1점뿐인 ‘무늬만 기념관’이다.

시인 이성부는 “광주에 가면 / 크고 작은 세상일 굽어 보며 / 든든하게 버티고 앉아 있는 사람 / (중략) 광주에 가서 / 서울 났지 않은 광주를 만나고 싶은 자 / 무등을 등에 업은 / 지산동 골짜기 초가집을 찾거라” (시 ‘광주에 가서’)고 했다. 언 제쯤은 외지인들에게 ‘오지호’라는 근사한 브랜드를 보여주게 될지 참...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열린연단’ 고전강연 시리즈, 40대가 많이 들었다

국내 석학들의 공개강연인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열린연단) 고전강연 시리즈를 40대가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전강연은 지난해 1월 시작해 이달 13일까지 모두 7개 세션의 50개 오프라인 강좌가 진행됐다. 인터넷 홈페이지(openlectures.naver.com)에는 15일 현재 48강까지 공개됐다. 48개 강좌의 페이지뷰(PV)는 1326만

뷰, 강연 영상 재생횟수는 100만 회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재생 횟수 38만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재생 수가 많은 강연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정약용의 ‘목민심서’, 동양의 고전, 노장 사상, 공자의 ‘논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